

자기역사 구성에서의 SNS 게시물 기록 적용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SNS Post Records in Self-History Composition

류한조(Ryu, Han Jo)*

1. 서론
2. SNS시대의 자기역사와 개인기록
 - 1) 자아정체성의 재인식
 - 2) 자기역사의 의미와 해석
 - 3) 개인기록으로서의 SNS 게시물 검토
3. 자기역사 구성에서의 SNS 게시물 기록 적용
 - 1) SNS 게시물의 자기역사 재현가능성
 - 2) 자기역사 구성에서 SNS 게시물의 활용
4. 결론

*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사(kalistland@gmail.com), 기록물관리전문요원.

■ 투고일: 2020년 03월 13일 ■ 최초심사일: 2020년 04월 02일 ■ 최종 확정일: 2020년 04월 26일

■ 기록학연구 64, 63-92, 2020, <https://doi.org/10.20923/kjas.2020.64.063>

〈초록〉

SNS 게시물 기록은 개인기록의 일부이나 그 본질적 특성에 대해 다루어지지 않았다. 그간 기술적인 특성에 주로 주목하였으며 정체성이나 온라인 공간을 고려한 연구는 드물었다. 본 연구는 SNS 게시물이 온라인 정체성을 반영한 기록이며 온라인 및 온라인과 관련된 사건을 재현하는데 SNS 게시물 기록이 의미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자기역사의 관점에서 개인이 겪은 사건을 서사적 자아 관점에서 자기역사 구성을 제안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SNS 게시물 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SNS의 매체적 특성과 개인의 활용방식을 함께 분석하였다.

주제어 : SNS 게시물, 개인기록, 자기역사, 자아정체성

〈Abstract〉

The SNS post records were not studied by some or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personal records. Until now, Studies on SNS post records have focused on research on technical characteristics, and studies on identity and online space have been rare. This study argued that SNS postings are records that reflect online identity and that SNS postings are meaningful in recreating events related to online and online. This study also suggested the composition of self-history from an epic self-image of events experienced by individuals from their own historical point of view, and argued that SNS post records perform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 To this end, the media characteristics of SNS and the way individuals are used were analyzed together.

Keywords : SNS post records, Personal records, Self-history, Ego-identity

1. 서론

최근 ‘멀티 페르소나(Multi-persona)’라는 용어가 트렌드 키워드로 등장하면서 자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김남도 외 2019. 197). 많은 이들은 단일하고 일관된 자아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지만 개개인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여러 개의 가면을 그때그때 바꿔 쓰면서 정체성을 분리한다는 것이다. 단일한 자아가 존재하기 보다 다양한 자아가 결합한 것 자체가 자신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개념이 현실에서 누구에게나 적용된다면 다시 의문이 남는다. 자아의 역사인 ‘나의 역사’는 어떻게 구성될 것이며, 나아가 ‘나는 누구인가’에 다시 대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역사를 종합하여 인식하는 것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표현하는 것이 곧 자신이 누구인지를 표현하는 일과 같다.

자기역사는 다른 역사와 같이 사건의 연속으로 종합되고 표현된다.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는 사건이 연속되며 현재의 관점에서 본 해석들을 통해 사건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게 된다. 나의 ‘자아’가 어떠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구성되었는지를 표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이 경험한 삶 자체가 곧 자아이며, 경험의 주체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멀티 페르소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이 오늘날 주목받는 현상은 온라인에서 발현되는 개인의 정체성이 자아를 설정하는데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멀티 페르소나 개념을 적용하면 개인의 다양한 자아는 온라인, 특히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사용하면서 주로 나타나며 이 때의 자아는 현실의 일상에서의 자아와 구분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현실에서 표현하지 못한 정체성이 온라인에서 드러난다고 볼 수 있는 개념이다.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개인이 경험한 사건을 재현하는 도구는 개인이 생산한 기록이다. 기록은 그 자체로 행위를 재현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

이다. 개인의 역사는 개인의 기록으로 재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SNS 게시물과 같은 유형의 기록이 늘어나는 현상은 개인의 역사를 기록으로 재구성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기록의 관점에서 개인기록은 일기나 메모, 편지가 주요한 유형이었으며 조직의 기록과 반대되는 것 정도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한국기록학회 2008, “개인기록”).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조금 단순한 듯 보이기도 한다. 개인의 기록은 과거보다 다양해졌으며 생산되는 양식도 변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SNS로 개인의 기록이 생산되고 유통되며 재생산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기록에서 기록 생산 환경의 변화는 종이에 쓰던 내용이 SNS라는 사이버 세계로 옮겨지는 현상 정도로 이해할 수 없다. SNS의 등장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타인과의 소통방식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문자언어 이외의 새로운 언어로 소통하기도 한다. 스마트폰을 손에 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벌어진 중요한 일이나 타인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수시로 SNS에 올리고 SNS 계정은 사이버 세계에서 자신의 아바타 역할을 하고 있다.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던 사이 자신의 중요 기록을 SNS로 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SNS 게시물에 대해 개인기록의 관점에서 연구된 사례는 많지 않다. SNS 게시물은 개인기록, 즉 메뉴스크립트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실물 기록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SNS 게시물을 주요한 개인기록의 범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SNS 게시물을 개인기록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함께, 인정된다면 어떻게 수집하고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기술적으로만 접근한다면 많은 SNS는 별도의 백업기능을 제공하거나 외부 프로그램을 이용한 백업을 허용한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의 경우 게시물과 함께 댓글까지 모두 json형태의 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기록의 수집차원에서 본다면 기술적 문제는 대체로 해결되어 있으며, 근본적인

선별과 정리방안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기록으로서 SNS 게시물에 가지는 가치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기록의 특성과 의미를 분석하는데 집중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이 자기역사를 구성하는 사건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방향을 개인의 주관적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SNS 게시물이 개인의 삶에서 경험한 중요한 사건을 재현해 줄 수 있다면 개인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재정립 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특성에 맞는 관리방법이 요구될 것이다.

개인기록을 자기역사와 연결시켜 접근하는 방식은 낮설게 보일 수 있다. ‘기록’은 사회적 가치에 복무해야 한다는 역사학적 인식이 보편화된 까닭이다. 개인의 기록은 후대 역사가들이 일상사나 미시사(微視史) 영역에서 개인의 삶을 복원시킬 수 있는 사료(史料)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다. 즉, 개인 기록의 수집과 관리는 기록 생산 주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일반적 생각이다.

그럼에도 개인의 기록은 기록 생산자인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여러 나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자서전 쓰기 프로그램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이해와 심리적 안정을 토대로 삶의 풍요로움, 자신의 재발견, 새로운 공동체 형성 등의 효과를 기대하며 보급되고 있다(이미애 2015). 특히 노인들의 경우 자아통합(Ego-integration)을 통해 노년의 삶의 안정을 얻기 위해 자서전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개인기록은 상당히 유용하다.

개인 스스로 자기역사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SNS 게시물은 까다로운 재료이다. 기계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선별과 정리를 시도하면 곧바로 문제점에 부딪히게 된다. 무엇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기록인지 평가하기 위해 선 기록과 연결된 행위가 중요한데, SNS 게시물은 기록을 생산하게 한 행위와 직접적으로 매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SNS 게시물이 현실의 특정 행위를 완전히 재현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가령 자신의 경험하지 않고 생각한 내용을 올린 게시물은 현실의 행위와 연관지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SNS 게시물 기록은 ‘게시’라는 행위를 재

현하지만 내용적 진실을 반드시 담보하지는 않는다. 게시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반영한 의도와 욕망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현실에서의 증명과 다른 고유한 의미를 가진다.

SNS 게시물 기록은 형태적으로도 일반적인 문자베이스의 문서기록이나 기술(Description)이 들어간 사진기록과 달라 관리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내용과 메타데이터만으로 기록을 이해하기 어려워 추가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개인기록에 대한 선행 연구는 기록의 유형이나 개인의 생애주기에 집중해 연구되었다. 개인기록의 특성을 조직기록과 비교하여 그 성격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조직의 개인기록 컬렉션을 통해 확인하는 연구에서부터(오명진 2017), 개인이 스스로의 아카이브를 만들기 위해 자신의 생애주기를 구분하고 각각의 주기를 계층화하여 기록을 배치하고 기술하는 방식을 제안하는 연구가 대표적이다(최유리, 임진희 2016).

또한 개인기록이 디지털 형태로 생산되는 경향성에 주목하고 해외사례를 종합하여 개인기록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원칙을 제시한 연구도 진행되었다(김승기 2015). 해당 연구는 개인기록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제안하기도 하였다. 한발 더 나아가 SNS가 개인의 기억이나 표현과정을 상업화시켰다고 비판하거나 너무 많은 기억이 보존되어 기억의 선별 매커니즘이 무너짐을 비판하는 연구도 확인할 수 있다(Garde-Hansen J. 2009).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SNS 게시물이 기존의 개인기록과 근본적으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혹은 SNS 사용과 함께 나타나는 새로운 자아와의 관계 정립 등에 대해 다루지는 못하였다. SNS 게시물은 새로운 개인기록의 유형일 뿐 기록관리 방식이나 생산 방식의 변화와 연결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SNS 게시물이 개인이 주관적 자기역사를 구성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며 기록으로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이어 개인기록의 특성과 SNS 게시물의 특성을 비교해 보고 이를 개인이 경험한

사건의 재현 관점에서 자기역사를 구성하는데 SNS 게시물 의의를 확인하였다.

2. SNS시대의 자기역사와 개인기록

1) 자아정체성의 재인식

자아정체성은 에릭슨(Erik H. Erikson)에 의해 처음 사용된 개념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이다. 사회적 구조 속에서 인간의 성장을 중시했던 에릭슨은 자아정체성을 삶에서 성취 이후에도 계속해서 획득하고 수정해가는 개념으로 보았으며, 획득과정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타자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미국정신분석학회 2002, “자아정체성”). 그는 자아정체성이 인간의 사회화 과정에서 형성되며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거나 거부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또 수정된다고 보았다.

정체성의 인식 문제는 ‘나는 누구인가’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 개념은 다시 데카르트의 유명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Cogito, ergo sum)’의 사유방식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유하는 정신과 행동하는 육체를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그의 인식론적 주장은 후속 연구를 거쳐 반박되고 수정되었다. 정신과 육체는 완전한 분리가 불가능하며 오히려 상호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데카르트적 접근방식은 가상현실과 SNS가 범람하는 인터넷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정신과 육체가 완벽히 분리된 세계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구현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나의 생각을 표현하는 곳에 존재하므로 네트워크로 연결된 세상에선 어디에나 존재한다는 해석이다.

인터넷 네트워크가 유선에서 무선으로 확장되면서 SNS의 비약적 발달을

가져왔다. 언제 어디서나 ‘지금의 나’에 대해 영상, 음성, 문자 등으로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개개인의 SNS에 대한 사용은 2019년 현재 8년 만에 30% 이상 늘어나면서 국민 절반에 육박하였고(한국미디어패널조사 연구팀 2020, 4), 동시에 SNS 게시물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SNS는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는 주요 매체로 자리매김했다고 볼 수 있다.

SNS의 광범위한 이용은 자아를 표현하는데 있어 새로운 현상을 발생시켰다. SNS 이용자들이 현실과 다른 이상적인 자아를 스스로 형성하고 온라인에서 표현하는 등 과거에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러한 현상은 세상을 거대한 공연장으로 간주하고 개개인을 공연자로 빗대어 설명하는 공연이론을 적용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공연에서 타인에게 보여지는 자아는 공연의 결과물이지 원인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어빙 고프먼 2016, 316). 현실세계는 자아가 주어진 역할에 대한 수행과정을 타인에게 보여주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진짜 내면을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주어진 배역이 없는 온라인 공간이 자아추구적인 모습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자아는 자신의 신체에 속박되어 있기에 안정성과 통합성을 가지지만 반대로 더욱 신체를 넘어선 변화를 갈망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정민승 2000, 147).

개인은 자신이 되고 싶어하는 자아를 구체화하고 표현하는 도구로 SNS를 이용하곤 한다. SNS 사용자들은 진짜 ‘나 다운 나’를 넘어서 ‘되고 싶은 나’나 ‘욕망하고 싶은 나’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를 만들어 자신의 계정에서 표현하고자 한다. 이러한 ‘나’는 결국 다시 ‘보여주고 싶은 나’의 모습으로 증폭된다. 일례로 SNS 계정의 프로필에 자기소개글이나 대표사진 등은 보여주고 싶은 정체성을 표현하고 소비하는 도구에 가깝다(김수환 2012, 18). 시대적으로 과거보다 평판이 중요한 사회가 되었고 ‘스스로가 보는 나’보다 ‘타인이 보는 나’의 모습이 정체성에 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유승호 2012, 103-104).

상시적으로 타인에게 노출되어 있는 SNS 미디어 특성이 결합해 멋진 이미지나 유행하는 언어가 과거보다 더 많이 생산되고 유통되는 현상이 일어났다. 자신의 일상이 익명에게 전시되고 상품처럼 소비되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김수환 2012, 18). 개인은 더욱 이미지와 유행에 집착하게 되고 타인과 비교하여 더 멋진 자아를 욕망하게 되었다. 이를 공연장과 공연자에 빗대어 보면 과거와 달리 공연자의 무대는 일상 공간과 온라인 공간으로 구분되어 제공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SNS의 대표문화인 셀피(Selfie)는 온라인에서 순식간에 타인에게 퍼져나가 손쉽게 인기스타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줌과 동시에 자신이 가진 나르시스트적 공허감을 채워주는 도구가 된다. 흔히 경험하는 ‘인증샷 찍기’는 더 멋진 이미지를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과시하여 자신감과 인기를 얻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엘자 고다르 2018, 80-81). 셀피는 자아를 표현하는 적극적인 행위이면서도 저장되는 기록이기도 하다.

동시에 일어나는 변화는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다. 자아 형성은 타인과의 관계 경험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SNS가 관계 형성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미지와 해시태그(Hashtag) 등이 지배적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되면서 ‘멋진 게시물’과 ‘좋아요’, ‘댓글’의 의미도 무시하기 어려워졌다. 운동을 하거나 유행하는 책을 읽는 모습의 이미지를 이용한 게시물로 간단히 자신을 표현할 수 있으며, 좋아요와 댓글의 수를 확인하면서 피드백을 얻고 충족감을 느끼는 일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모두가 멋진 자아를 지향하면서 매력적이고 건강한 이미지나 멋있는 프로필을 획일적으로 사용해 개성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는 주장도 있다(에바 일루즈 2010, 16). 신체적 아름다움에 집착에 가까운 추구는 SNS가 가져온 ‘신체에서 해방된 자아’에게 일어난 아이러니이기도 하다. 온라인 공간에서 타인과의 정체성 경쟁은 비슷비슷한 사진들 사이에서 조금 더 뛰어난 미모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차별성을 확보하면서 일어난다(에바 일루즈 2010, 158). 개인은 범람되는 이미지 속에서 계

속해서 멋진 이미지를 생산해내야 좋아요와 댓글을 충분히 획득할 수 있다.

SNS에서는 땀에 젖은 손, 빨라지는 심장박동, 상대의 숨소리와 같은 비언어적이고 육체적 커뮤니케이션이 배제된 채 관계가 형성된다(에바 일루즈 2010, 149). 반면 바다 건너에 있는 사람과 번역기만 있다면 언어와 관계없이 즉각적으로 대화할 수 있으며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게시물을 통해 상대의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친근감은 좋아요와 댓글로 아주 가볍게 표현하곤 한다. 온라인에서는 물리적 거리감이나 에너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은 가벼워지고 더 즉흥적인 형태로 메시지가 표현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미디어는 신체의 확장이라는 맥루언의 명제를 적용한다면 스마트폰은 인간의 모든 것에 대한 확장이라고 볼 수 있다(마셜 맥루언 2011, 31).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도,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방식도 현실과 다른 형태로 작동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세계와 온라인에서의 자아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개개인은 자아분열현상을 겪거나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혼돈하지 않는다. 놀라울 정도로 적용된 모습을 보인다. 그 원인으로 다양한 자아가 상충되어 존재하기보다 진짜 정체성은 하나일 뿐 표현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찾아볼 수 있다(정기도 2000, 102). 현실과 온라인에서의 정체성이 상충되는 것은 애초부터 우리 자아가 총체화된 형태의 논리정연한 모습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정기도 2000, 118). 개인의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온·오프라인에서 여러 경험을 겪으며 자연스럽게 변화하면서 상충되는 지점이 완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SNS 시대에서 자아는 현실의 일상에만 존재하지 않는다. SNS의 존재로 인해 개인은 온라인에서 자신이 이상하는 형태의 자아를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현실에서의 관계와 무관한 '사회적' 관계도 맺게 되었다. 서비스 종류별로 다른 자아를 표현하기도 하며, 동시에 현실 자아는 육체와 결합되어 별다른 혼란없이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유지되고 있다. 종합해보면 현 시대에서 자아정체성은 개인 내에서 다중적으로

존재하며 여러 자아가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세계에서 SNS에서의 자아에 대해 단순히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표현으로써 진지하게 바라봐야 할 것이다.

2) 자기역사의 의미와 해석

자아정체성에 대한 인식은 자기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인지하고 해석하여 표현한 것이 자기역사이기 때문에 자기역사는 곧 자아정체성의 역사이자 표현이다. 반대로 자아정체성의 변화는 자기역사의 변형과 재해석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자기역사는 흔히 연속된 에피소드로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로 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치바나 다카시 2018, 62). 자기역사를 생애회고 과정을 거쳐 글로 쓰게 되면 자서전 형태가 되지만, 자서전을 쓰지 않더라도 누구나 자전적 기억 형태로 저장하여 보유하고 있다. 자전적 기억으로 저장된 자기역사는 끊임없이 추가되고 재해석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영향을 준다.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돌아보고 기쁨이나 후회의 감정을 느끼는 과정은 곧 자신에게 과거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돌아보는 자기역사 구성 행위라고 볼 수 있다(진영선, 김영경 2010, 219).

과거에는 자기역사를 구성하고 정리하여 글로 표현하는 자서전 쓰기 노년층의 전유물이었다면 현재는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자서전 쓰기 자체가 하나의 교육방법으로 채택되는 경우도 발견할 수 있다(최선녀 2014). 자기역사를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건전한 자아를 형성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자기역사 구성은 건전한 자아 형성 효과 뿐 아니라 기억에 대한 부조화를 해소하여 자아통합을 얻는 등 그 자체로 의미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자기역사 쓰기 주체가 확대되면서 노년층 위주의 느린 변화와 좁은 인간 관계를 표준으로 보기 어려워졌다. 현재 노년층은 SNS를 통한 소통을 상대

적으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고, 정체성이 본격적으로 형성되던 성장기 및 사회진출기 당시 SNS 사용 경험이 드물었다. 그러나 중·장년층 이하 세대들에게 SNS는 주요한 소통수단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정보습득, 자기노출, 사회적 의사 표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삶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SNS의 영향력이 커지는 경향성은 현실에서의 사건과 행위만으로 자기역사를 구성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SNS를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SNS는 삶에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자기역사는 개인이 경험한 사건을 중심으로 구성되지만 근본적으로는 경험 주체인 자아의 변화를 재현하는 속성을 가진다. 입학, 취업 등 사회적 의례에 의해 중요성을 인식하는 사건들은 대체로 현실자아 중심인데 반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자아를 고려하여 자기역사를 구성하는 과정은 추가적 고민이 요구된다.

온라인에서의 자아와 현실에서의 자아가 개념적 공간과 매체에 의해 구분된 자아라면 이를 종합하여 자아 역사를 구성하기 위한 개념이 필요하다. 이에 적합한 도구로 이야기를 통해 정체성을 찾는 서사적 자아(Narrative-Self) 개념을 제시할 수 있다(폴 리콕르 2004, 471). '나라는 주체의 경험을 종합한 자아 개념으로 자신의 자아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사건과 사건 간의 관계를 통해 표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자기역사에 대한 다른 특징은 자신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는 사건의 연속이라는 점이다. 자기역사는 현재의 자아정체성을 기준으로 과거를 해석한 결과물이다. 자기역사는 시간의 흐름이나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자아정체성에 의해 계속해서 변형될 수 있으며, 각각의 사건에 대한 해석이나 관계 역시 바뀔 수 있다. 스스로 인식하는 자아가 어떠한지 하고 어떠한지는 안되는지에 대해 스스로 규정하고 그에 맞추어 행위를 해석하게 된다(Jerome Seymour Bruner 2010, 100-101).

자연스럽게 서사적 자아는 자기역사 구성에 필요한 중요 사건을 선별해 내는데 필요한 개념이 된다. 자기역사에 있어 거시평가에 필요한 일종의

도구로 작동하게 된다. 서사적 자아는 자기역사가 서술하는 현시점에서 유효하며 자신의 정체성 자체가 경험의 산물이자 변화하고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출생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내’가 같은 사람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정체성이 수공되는 이야기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김유석, 이승하 2011, 32). 따라서 서사적 자아는 목표, 기획, 책임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내는 중심으로서의 자아가 될 수 있으며(신상규 2011, 84), 현재의 ‘나’에 대한 높은 이해를 전제한다.

구체적으로는 ‘이해가능성(Intelligibility)’과 ‘설명가능성(Accountability)’이 서사적 자아의 주요한 개념적 토대가 된다(방진하 2014, 81). 수공되는 이야기에는 자신의 이해와 함께 타인에게 납득시킬 수 있는 타당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의 다양성 증가는 자기역사 구성에 있어 졸업이나 결혼 등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일반적 사건만으로는 이해가능성이나 설명가능성을 충분히 녹여내기 어렵게 한다. 또한 ‘화자’로서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고민과 반추를 함께 요구하기도 한다.

이를 SNS에서의 자아에 대입시켜보면 온라인에서 일어난 사건이 개인에게 중요한 경험이 된다면 자기역사에도 반영될 것이며 서사적 인과관계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경험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정체성에 대한 서사를 온라인에서의 경험으로 메꾸어 낼 수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가령 온라인에서 누군가와 인상적인 논쟁을 하면서 가치관이 바뀌거나 셀피를 올려서 타인에게 유명세를 얻는 경험은 과거세대에 비해 현저히 늘어났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경험이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이다. SNS로 인해 겪은 경험들이 자기역사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 자기역사 구성이 변화하고, 나아가 자아의 형성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자기역사를 구성하는 사건들은 현재 자신을 기준으로 영향력이 큰 사건들을 선별하게 된다. 자기역사 역시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해석이나 판단이 변할 수 있다.

자기역사에 있어 SNS는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 자기역

사에 대한 영향을 구분하여 접근하자면 SNS 내에서 일어난 사건과 SNS와 현실이 결합하여 일어난 사건으로 분리할 수 있다. SNS 내에서 자신이 이상하는 자아를 표현하면서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경우와 SNS에서의 경험이 현실에서의 관계를 새로 만들거나 변화시키는 경우로 나누어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들은 개개인의 인식에 따라 자기역사에서 주요한 사건으로 인식될 여지가 높다.

3) 개인기록으로서의 SNS 게시물 검토

SNS 이용자들은 ‘정보추구’, ‘자극심 표출’, ‘추억공유’, ‘사회상호작용’, ‘기분전환/여가’, ‘정체성 표현’, ‘유행성’ 등을 서비스 사용에 대한 주요한 동기로 꼽았다(최영, 박성현 2011, 267-268). SNS는 점차 더 개방적인 형태로 변하고 있으며 이는 정체성 표현 기능을 상대적으로 강화시키도록 유도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프로필 이미지나 검색 가능한 게시물은 자기노출의 주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각각의 SNS 매체적 특성은 생산방식과 사용방식의 차이를 만들어 냈다. 공통점은 음성이나 몸짓 소통이 문자와 이미지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으며, 현실에서만 존재하던 비언어적 제스처어나 표정이 대체로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반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댓글이나 ‘좋아요’, ‘팔로우’와 같은 새로운 표현방식이 현실 소통의 빈틈을 메꾸고 있다. 게시물 업로드 시 이들 기능이 결합하여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 작동하고 있다. 일찍부터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기록 생산 매체의 변화는 의사소통에서부터 관리방식의 변화를 불러온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Eric Ketelaar 2007, 173).

기록관리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관리를 위한 접근방식 변화를 요구한다. 가령 인스타그램에선 이미지에 간단한 태그를 붙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만 페이스북에선 장문의 글이나 링크 등을 주로 사용하는 차이를 보인다.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내용에 대한 맥락 설명이 불충분해 고정적인

관리체계를 부여하거나 특정 행위의 재현 관점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문자언어는 대체로 태그를 위해 존재하며 이미지와 결합해야만 의미가 부여된다. 문자보다 이미지가 주된 언어가 된 것이다. 문자는 검색을 위한 도구에 가까우며 일종의 메타데이터 역할만을 제한적으로 수행한다. SNS 게시물 기록은 행위를 재현한다는 본질적 특성은 변하지 않지만 대상을 재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인스타그램 사용자들은 문자 언어를 사용해 설명하기보다 이미지를 유통시키는 것이 자신의 원하는 메시지 전달에 수월하다고 인식한다. 문자태그는 이미지와 결합하여 하나의 메시지로 작동하기 위한 세트 개념에 가깝다. 인화된 사진과 같이 건(Item) 단위의 개인기록으로 간주하여 사건을 증명하거나 재현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경우 적절한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SNS는 개개인의 기억을 공유하고 확장하거나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Garde-Hansen J. 2009, 148). SNS는 네트워크 연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나'만의 기억이 담겨있지 않으며, 타인과 소통하면서 일어나는 작용들의 흔적과 공동으로 형성한 기억을 담고 있다. SNS 게시물은 타인과의 소통 결과로서 의미있을 뿐 아니라 현실에서 일어난 일상을 재현하는 기능도 가진다. 최초 생산 시부터 SNS 기록은 무엇인가를 그 자체로 저장하기 위한 목적보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유통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

따라서 SNS 게시물을 개인기록으로 관리하려면 생산 환경에 주목해야 한다. 블로그(Blog)와 달리 스마트폰 푸시(Push) 알람 기반 SNS는 대체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무엇을 목격한 즉시 생산되는 현재성을 가지고 있다. SNS는 그 자체로 타인과 현재를 공유하는 특성을 가지는데, 게시물을 작성하는 순간 구독하고 있는 여러 유저(User)들이 동시에 내용을 확인하며 생산자 역시 이를 인식하고 행동한다(김수환 2012, 15). 타인에게 무엇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이미지 프레임 구성, 타인에게 알람이 전달되는 매커니즘까지 고려하여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SNS 사용은 고도의 자기 이미지 표현이자 자아정체성의 재현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이미지 기반 SNS에서 두드러진다. 사진은 문자보다 즉시성을 가진다는 특성이 반영되어 인스타그램과 같은 서비스는 문자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한다. 듣고, 보고, 느낀 순간의 즉시성에 기댄 SNS 게시물 작성은 행위에 대한 기록과 메시지 전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즉시성은 실제 행위와의 시간차를 최소화하여 재현에 필요한 신뢰성을 높인다. 또한 시간이나 태그를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어 다른 개인기록과의 연결에도 유리하다. 즉시성에 기반한 기록의 순차적 축적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기 용이하다.

기록의 신뢰성 측면에서도 기존 개인기록과 차이를 가진다.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을 전제로 생산하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증거력 측면에서 신뢰에 대한 의문이 발생할 수 있다. 온전히 대상이나 행위를 남기기 위해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록사진과 달리 주제의식과 정보전달 기능도 특별히 강조되지도 않는다(박주석 2011, 198-199). 반면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혹은 자신의 관심사나 생각을 어떻게 전달할지와 같은 개인적인 요소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개입된다. 따라서 SNS 게시물 기록은 행위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 적극적 의도가 개입된 작품으로 해석할 여지도 존재한다.

인스타그램의 특성을 연구한 마노비치는 인스타그램 내 사진의 종류를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는 캐주얼형(Casual Photos), 프로페셔널형(Professional Photos), 연출형(Designed Photos) 등 3가지로 사진의 유형을 분석하였는데, 그 중 연출형을 '좋아요'와 '팔로우'를 획득하기 위한 커뮤니케이션 특화 사진으로 정의하였다(Lev Manovich 2017). 연출형 사진을 힙(Hip)하고 모던한, 그리고 현대적인 느낌을 부여하면서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다(Lev Manovich 2017). 그는 캐주얼형 사진은 일상을 기록하면서 기억하기 위한 용도이며, 프로페셔널 사진은 미적 아름다움 자체를 추구하는 방식의 사진이라고 정의하며 연출형 사진과 분리시켰다. 그의 주장은

인스타그램의 사진에서 인정 투쟁(Recognition Struggle)이나 자아표현을 위한 사진과 다른 사진을 구분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캐주얼형은 주로 셀피(Selfie)나 반려동물과 같은 사진이 많으며, 프로페셔널은 휴대폰보다 전문적인 카메라를 이용해 작품처럼 찍은 사진을 주로 지칭한다.

연출형 사진을 이용한 게시물은 예술작품을 감상하거나 멋진 옷을 입은 사진, 고급음식점에서의 사진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연출형 사진은 자신이 원하는 자아를 연출된 이미지로 타인에게 전시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게시한다고 볼 수 있다(김수환 2012, 18-19). 연출형 사진 속에서는 현실의 작은 어긋남도 없이 말끔한 모습으로 자아가 전시되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사진보다 타인의 반응을 더욱 의식하게 된다.

따라서 연출형 사진은 사진에 찍힌 행위가 아니라 사진을 찍어 게시한 행위 자체가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셀피 사진은 미술관에 가서 미술을 관람했다는 사실보다 미술을 관람하는 교양있는 자신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는 접근이다. 또한 본문이나 태그의 의미들을 포함하여 자신이 지향하는 자아 이미지를 표현한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댓글과 좋아요와 같은 반응이 결합해야 상응하는 가치판단이 가능하다. 기록관리 측면에서 SNS 게시물 중 연출형 사진을 별도로 구분한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한편 페이스북에서 볼 수 있는 텍스트 중심의 게시물은 다른 특징을 지닌다. 이미지 중심 게시물이 멋있는 느낌이나 미적 아름다움, 일상의 나눔 등을 표현하면서 외적 자아를 드러낸다면, 문자 중심의 SNS 게시물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표현, 문화적 교양, 사회 이슈 등을 통한 내적 자아를 드러내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자아를 전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전시의 양상이 다르다.

문자는 이미지에 비해 객관적 정보를 전달하거나 논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표현하기 유리하다. 개개인은 각각의 SNS 플랫폼을 게시물 작성 목적에 따라 선택하게 되며, 서비스에 따라 다른 자아를 드러낸다. 이는 SNS

마다 다른 형태의 기록이 생산되고 유통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페이스북과 같은 문자중심 SNS는 정보전달이나 이슈에 대한 의사 표현이 유리하기 때문에 타인과의 갈등이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댓글을 통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며, 누군가의 링크로 접한 몇몇 게시물이 강한 심리적 감흥을 일으키기도 한다. 타인에게 많은 관심을 얻는 게시물의 종류도 이미지보다 논리정연한 텍스트 비중이 높다.

이들 SNS의 게시물은 개인의 행위 혹은 특정 순간 의사 표현, 대상에 대한 감정 등을 증명하고 재현한다는 측면에서 기록으로 의미를 지닌다. 특정 SNS 계정의 전체 게시물은 시간 순서에 따라 자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과정이 저장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또한 타인과의 소통방식인 댓글, 좋아요, 팔로우 등이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증거 가치를 가지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부작위(不作爲)에 인한 의사표현도 가능한데, 늘 특정인의 게시물에 좋아요 등으로 반응하던 팔로어가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메커니즘은 작성자로 하여금 항상 지켜보고 있음을 의식하게 하여 공연자로서의 자아를 SNS 게시물에 계속해서 투영하도록 유도한다.

여기에 더해 이모티콘이라는 문자와 이미지의 경계에 있는 표현방식도 주목할 수 있다. 문자보다 가볍고 이미지처럼 즉각적으로 인식하는 이모티콘은 표현하는 감정을 유형화시키고 특정한 감정마저 유행으로 만든다(엘자 고다르 2018, 107). 이러한 특성을 기록의 관리 측면에서 게시물에 표현되는 감정의 깊이나 종류를 유형화시켜 분류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모티콘에 근거한 분류는 기록의 맥락정보에 대한 의존성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SNS 기록의 범람에도 텍스트를 기록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어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어렵게 한다(Geoffrey Yeo 2008, 123). SNS 게시물은 대체로 디지털로 생산된 기록(Born digital)이자 데이터세트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므로 본문 텍스트만을 문서와 같이 관리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증거적 관점만을 적용하여 소극적으로 관리한다면 그 의미를 온전히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 전통적인 문서단위 기록에 메타데이터를 결합한 방식만으로는 SNS 게시물이 가진 의미구조를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3. 자기역사 구성에서의 SNS 게시물 기록 적용

1) SNS 게시물의 자기역사 재현가능성

SNS 게시물이 개인기록이라면 개인이 겪은 사건을 재현할 수 있다. 기록의 재현 가능성을 인정하면 기록은 인간의 행동이나 경험을 재현하는데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다(Geoffrey Yeo 2012, 45). 조직이나 기능 중심 관점이 아닌 개인의 행동이나 경험 관점에서 접근하면 기록의 관리과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자기역사는 철저히 자신의 주관성에 기반한 개념으로 이를 위한 기록관리의 수혜자 역시 자기 자신이다. 자기역사 구성은 자신을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서사적 인과성을 중심으로 과거를 선별하여 종합하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자기역사 구성을 위해서는 정해진 기능이나 출처를 따르기보다 개인이 경험한 사건을 적절히 분해하고 계층화시켜 분절된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별 기록 단위의 접근과 사건 중심의 이해가 적절히 혼합될 필요가 있다.

완전한 출처나 완전한 원질서가 사라진 현대사회에서 아키비스트에게는 맥락(Context)과 집합(Aggregation)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집합에 대한 이해는 개별 기록을 관리하는데 가장 본질적 원리에 가깝게 간주되곤 했다(Mark Greene 2009, 23). 다변화된 시대에 기성의 기능

이나 조직에 의존하여 기계적으로 기록을 관리한다면 개별 기록의 의미를 적절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생각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자기역사를 위한 기록 관리에 녹여낸다면 특정행위를 인식해서 기록 집합을 만들어내기보다 회상이나 재인식 과정을 종합하여 적절한 집합단위를 고민하는 단계가 필요할 수 있다.

자기역사는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자아의 변화를 담아낸다. 따라서 엄밀하게는 자기역사 대상으로서의 ‘나’와 자기역사 구성주체로서의 ‘나’를 구분하여 자신의 자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구성주체로서의 ‘나’는 한 발 떨어져 자기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을 서사적으로 구성하게 되며 이를 기준으로 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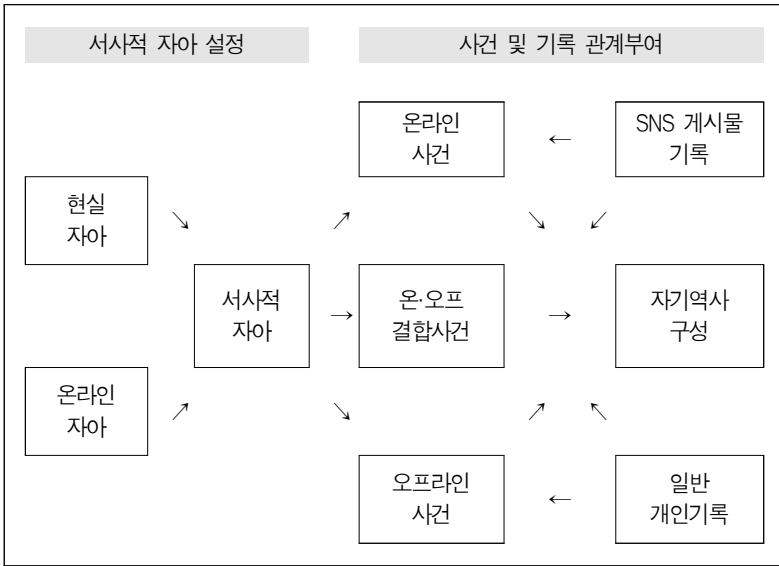
자기역사 구성은 서사적 자아가 자신이 경험한 ‘중요’ 사건을 선별하는 단계가 필수적이다. 온라인에서의 정체성과 현실에서의 정체성 모두를 포괄하여 종합된 자아는 어떠한 사건들의 합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다. 이 때 온라인에서 지향하거나 작동하던 자아와 배역이 주어졌던 현실에서 만들어진 자아가 연결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상호 영향을 주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SNS 게시물 기록은 개인기록으로서 특정 행위나 경험을 재현할 수 있으며, 재현과정에서의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관리 및 활용에 대한 접근이 달라질 수 있다. SNS 게시물 기록은 대상을 재현하는데 있어 특별한 지위를 가지지는 않지만, 누락되거나 온전히 인식하기 어려운 사건 재현에 기여함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다. 사건에 대한 동기나 태도, 인식에 대한 감정은 상대적으로 휘발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의 해석은 표면적인 내용이 동일해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자기역사 구성에 사용되는 사건은 온라인에서 일어난 사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온라인에서 일어난 사건은 다시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온라인 공간 내에서 일어난 사건을 들 수 있다. 자신이 설정한 온라인 자아가 타인과 소통하면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감정적 자극

을 받는 등의 사건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거나 좋아하는 연예인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는 경험은 흔히 일어나지만 개인에게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감흥을 주기도 한다. 경우에 따라 SNS 이용자들은 온라인상에서 공동체처럼 운영되는 공간에서 소속감이나 지지감을 느끼기도 한다(김해원, 박동숙 2013, 311). 소속감과 지지감은 자아정체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림 1〉 자아가 반영된 자기역사 구성과 기록과의 연결



두 번째 경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의 사건이다. 온라인에서 촉발되어 오프라인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오프라인에서의 관계가 온라인으로 변화되는 경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삶에서 일어난 주요한 사건이 온라인과 오프라인과의 결합으로 벌어지는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SNS에 올린 사진이 화제가 되어 인생의 진로를 변경하거나, SNS 내에서의

토론 경험으로 정치적 지지 의사를 변경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현대사회의 관계 맺음은 더이상 현실에서 면대면으로만 일어나지 않는다.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이 SNS로 전파되어 삶을 변화시키거나 혹은 SNS에서 표현한 글로 인해 현실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SNS에 의존하여 타인과의 관계 맺음을 판단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존재한다(유승호 2012, 118).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의 SNS는 시간순으로 게시물이 정리되어 있어 타임라인을 통해 타인에 대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SNS를 통해 타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취미 등을 파악하기도 한다. 실제 취업이나 비자발급 시 SNS 계정은 일종의 이력서로 간주되어 활용되기도 한다.

SNS 게시물 기록은 온라인에서 일어난 사건의 재현에 유리하지만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른 기록과 결합 없이 온전히 재현하기는 쉽지 않다. 온라인과 현실이 결합된 사건이나 현실 사건과 관련된 SNS 게시물 기록은 상세하고 완전한 설명 대신 대상에 대한 부분적인 설명과 함께 기분과 감정에 대한 표현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SNS 게시물은 이미지, 글, 하이퍼링크(다른 매체 혹은 타인의 SNS) 등이 결합되어 의미구조가 복잡하며, 현상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저장되어 계속해서 수정될 수 있는 비선형적 구조라는 점도 제약으로 작동한다(Garde-Hansen J. 2009, 142). 기록이 가진 원질서를 인식하기 어렵고 보통 서사구조를 띄고 있지 않아 적극적 해석이 개입되어야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단점이 될 수 있다.

반대로 SNS 게시물 기록 없이 구성되는 개인의 자기역사는 평면적이고 표면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게 된다. SNS 게시물 기록의 활용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누구나 경험한 사건 위주로 평범하고 건조하게 자기역사가 구성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다. 가령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한 경험을 가진 개인은 자기역사를 단편적으로 평면적인 성공의 역사로 표현하게 될 수 있다. SNS 게시물 기록은 생략될 수 있는 좌절과 우울감, 환희와 고

민에 대한 감정과 시선을 보충해줄 수 있다.

SNS 게시물 기록은 적극적인 자기노출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자아정체성을 스스로 기술(Description)하거나 의도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은 자기역사 구성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할 수 있다. 연출형 사진이 포함된 SNS 게시물이나 서비스 계정에 자신을 소개하는 프로필 등은 과거 특정 시점의 자신이 지향하던 자아를 재현하는데 중요한 기록이 되기도 한다.

2) 자기역사 구성에서 SNS 게시물의 활용

자기역사 구성은 자신의 현재 관점에서 과거 자신이 경험한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사건 간의 관계를 해석하는 작업이다. 자기역사는 에피소드의 연속이며 에피소드는 다시 사건들의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건을 서사적으로 표현하려면 서사적 자아는 인과관계가 정리되지 않는 사건들에 대해 질서를 부여해야 한다.

인간의 자전적 기억은 긴 시간에서의 레벨, 일반적 사건에서의 레벨, 짧은 시간에서의 특정한 경험에서의 레벨로 계층화되어 있다(Conway, M., Pleydell-Pearce, C. 2000, 265). 이러한 계층화는 데이터베이스 형태처럼 체계적이기보다 연결은 되어 있으나 부호화된 형태로 혼재되어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 과거를 구조화하기 위해 동원하는 방식은 회상과 기록을 통한 재현이다. 회상은 과거에 관한 다양한 측면의 정신과정으로 과거에 관해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인지과정, 정서과정 그리고 언어를 통한 사회 상호작용이 포함된다(전시자 1989, 95). 회상 중에서도 인생을 전체적으로 회상하는 방식을 생애회고(Life review)라고 지칭할 수 있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고차원적이면서도 포괄적인 평가와 분석이 동반된다(Butler, R. N. 1963, 66). SNS 게시물은 회상행위의 촉매가 되기도 하며 구체적인 회상

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에 자신이 겪은 인상적인 경험에 대한 표현을 접하면서 과거의 자아가 가졌던 생각이나 시선에 대해 떠올릴 수 있다. 자기역사 구성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떠올린 사건을 서사적으로 해석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과정은 상당히 길고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틀을 필요로 하며, 이를 사회적 발달단계 이론을 차용하는 경우가 많다. 유아기와 성장기, 정규교육과정, 사회진출, 결혼과 출산 등의 사회적으로 주어진 방식대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자신의 역사를 정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가령 인생을 8단계로 나누어 역할과 성취목표를 구분한다던가 (Erikson, E. H 2014, 302-335), 6개 단계로 나누어 발달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이(R. J. Havighust 1996, 21-214) 사용되었다.

사회적 발달단계에 맞춰 떠올린 사건을 기계적으로 배치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자기역사 구성의 효용을 발생시키기 어렵다. 서사적 자아는 사회적 인 틀을 사용한다 해도 자신만의 재해석이 동반되어야 표현될 수 있다. 인생은 사회적으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개인의 고유한 정체성을 놓치기 쉽기 때문이다. 수긍되는 이야기로서의 자기역사를 만들어 내려면 내적 동기와 타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시기별 정체성을 충분히 드러내야 한다. 기존에 개인기록으로 간주되던 기록은 일기 등을 제외하면 증명서와 같은 사회적 가치를 수용한 유형이 많다. 사회적 역할 중심으로 자기역사를 구성할 경우 자기만의 서사를 구성하고 그 의미를 발견해 내는 것과 같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정래필 2016, 780). 타인과의 관계나 자기 내면의 표현 등이 적절히 포함되지 않는다면 자기역사 구성이 가지는 효과를 충분히 이끌어 내기 어렵다. SNS 게시물 기록은 드러난 사건 뿐만 아니라 당시의 내면적 변화 등을 재현하는 등의 역할을 하여 입체적인 자기역사 구성에 기여할 수 있다.

개인의 삶은 탄생에서부터 학업, 성취, 취업, 출산, 결혼 등과 같은 사회적 역할에 의한 사건 외에도 스스로에게 주관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온라인에서 타인과 논쟁을 벌이면서 자신의 정치·사회적 성향을 확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라인에서 SNS 소통으로 시작해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SNS에 게시한 글이나 사진으로 인해 유명세를 타면서 예기치 않게 타인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는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삶을 사는 경우도 일어난다(pmg 지식엔진연구소 2017, “인플루언서 마케팅).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자체로 자신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현실과 온라인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은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다. 이는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일이 온라인 밖의 현실과 결합하기도 하고, 그 자체로도 삶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사건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회상을 통해 떠올린 사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혼재되어 있어 시작과 끝을 구분하여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의 자아가 수행한 행위와 현실에서 사회적 역할을 토대로 수행한 행위가 혼재되면 온라인 자아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수 있다. 서사적 자아의 경험을 판단할 때 입학과 졸업, 취업, 결혼과 같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가치에 가중치가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이다(이광경, 주영아 2016, 304).

SNS 게시물 기록은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만으로 자기역사를 구성하여 사회적 발달단계와 유사해지는 부작용을 막을 수 있게 한다. 서사적 자아의 관점에서 사건과 사건 간의 관계를 부여할 때 새로운 해석이나 새로운 사건의 개입을 할 수 있게 하여 역사구성 전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플롯(Plot)이 적용된 서사구조에서는 사건 간의 인과구조가 필요한데, 자신만의 해석이 적용된 인과 관계는 서사적 자아를 자기역사의 완전한 주인공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

SNS 게시물은 개인의 내적 변화에 대한 재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타인과의 관계, 자신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반응 등을 재현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자신의 현재 기억과 과거의 글, 타인의 반응 등을 함께 종합하여 자기역사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편익을 제공한다. 회상에 필요한 단서 역할

과 함께 사건을 재해석하여 재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SNS 게시물은 과거 자신이 지향하던 온라인 자아가 경험한 사건들을 재인식할 수 있게 한다. 과거 자아에 대한 감정적 이입과 주관적 시선의 도출은 현재 자아와의 차이를 통해 자아의 변화과정을 재현할 수 있도록 한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타인에게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 했는지 보면서 사건의 증거 측면 뿐 아니라 사건에 대한 당시 자신의 태도를 확인할 수도 있다. 사건의 시작과 끝과 함께 사건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재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SNS 게시물을 활용한 자기역사 구성은 연대기적 사건의 모음이 아니라 내적 자아의 변화과정을 담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SNS 계정의 프로필이나 게시물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사건을 넘어 자아를 간접적으로 재현하고 서술하는 특성을 가지기도 한다. 자신의 생각 표현이 축적되는 SNS 매체 특성은 상대적으로 대상을 증명하고 기억하기보다 자아를 재현하는데 유리한 지점을 가진다.

온라인 자아가 현실에서의 자아와 함께 서사적 자아로 종합되는 과정은 자기역사를 구성하는 개인의 자아정체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게 된다. 자기역사 구성은 과거 경험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성찰하면서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하며 진짜 자신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사건과 SNS 게시물 기록은 개인의 삶에 대한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5. 결론

자신의 과거를 인식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 내는 작업은 현재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행위이다. 자기역사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과거 자신의 사건과 자아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된다. 자기역사를 쓰는 과정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행위지만 과거 행위를 재현한다는 부분에서 기

록을 필요로 한다.

기존 개인기록에 대한 연구는 주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 아카이브의 관점에서 다루어졌다. 의미있는 사회적 기억을 남기기 위해 의미 있는 인물이나 사건들과 관련된 기록이 중요기록으로 간주되었다. 개개인이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이나 과거를 기억하는데 아카이브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스스로 자기역사를 구성하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기억으로 연결된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사회적 기억 보존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더해 개인이 자신의 역사를 구성하는 것은 스스로의 자아통합이나 건전한 자아형성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개인이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구성하는 과정은 간단하지 않다. 자신의 과거에서 어떠한 사건이 자신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선별하고 사건 간의 관계를 조직화해야 하는데, 이러한 작업은 상당한 노력을 요구한다. 개인기록의 대표적 유형인 일기는 이에 대한 어려움을 일정 부분 덜어주었다.

하지만 미래의 자신을 위한 일기가 사라지고 현재 타인이 보는 SNS를 더욱 많이 활용하는 현 시대에서는 양상이 달라졌다. SNS 게시물이 현재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나 느낀 감정을 주로 SNS에 표현하며 저장하고 있다. 기억하기보다 표현하기 위해 쓰는 SNS 게시물 기록은 일기와 역할이 다르며 즉시성을 지닌다는 차이점이 있다.

또한 SNS가 지배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면서 이를 개인기록으로 편입할 경우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늘어나게 되었다. 사람들이 SNS에 현실 자아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온라인에 맞는 별도의 자아와 표현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SNS로 연결된 네트워크가 일종의 가상세계가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

였다. 결과적으로 SNS 게시물 기록은 다양한 방식으로 개인의 역사를 재현하게 되었다.

형태적으로도 SNS 게시물 기록은 오프라인 개인기록과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좋아요나 답글, 연출된 이미지, 하이퍼링크 등이 결합되어 하나의 기록을 구성하기 때문에 이에 맞추어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늘어났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SNS 게시물 기록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역사를 구성하는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서사적 자아 개념이나 온라인 정체성 개념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사회적 발달단계에 따라 평면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 자기역사에 자아정체성의 변화를 담아 내는데 SNS 게시물이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일정한 과도기적 한계를 가진다. 롤플레이팅 게임과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의 도입 등에 대한 해답을 아직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새롭게 인기를 얻고 있는 동영상 기반의 SNS 게시물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 구체적 방법론보다 매체적 특성과 내용적 특성에만 집중한 한계도 존재한다.

본 연구는 SNS 게시물이 과거 문서기록과 그 형태만을 달리하여 현실을 재현하지 않음에 주목하였다. 매체에 따라 다중적으로 드러나는 개인의 정체성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자기역사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기록과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할 수 있다. 본 연구가 향후 SNS 게시물 기록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의 초석이 될 것을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김난도 외. 2019. 『트렌드 코리아 2020』. 미래의창.
다치바나 다카시, 이연숙 역. 2018. 『자기역사를 쓴다는 것』. 바다출판사.
마셜 맥루언. 2011. 『미디어의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 미국정신분석학회, 이재훈 역. 2002. 『정신분석용어사전』. 한국심리치료연구소.
- 어빙 고프먼, 진수미 역. 2016. 『자아 연출의 사회학』. 현암사.
- 유승호. 2012. 『당신은 소셜한가?』. 삼성경제연구소.
- 엘자 고다르, 선영아 역. 2018. 『나는 셀피한다 고로 존재한다』. 지식의 날개.
- 에바 일루즈, 김정아 역. 2010. 『감정 자본주의』. 돌베개.
- 정기도. 2000. 『나, 아바타 그리고 가상세계』. 책세상.
- 폴 리콕르, 김한식 역. 2004. 『시간과 이야기 3 이야기된 시간』. 문학과지성사.
- Erikson, E. H. 송제훈 옮김. 2014. 『유년기와 사회』. 연암서가.
- Lev Manovich, 2017. 『Instagram and Contemporary Image』.
- Jerome Seymour Bruner, 강현석·김경수 역. 2010. 『이야기 만들기』. 교육과학사.
-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7. 『시사상식 사전』. 박문각.
- R. J. HAVIGHURST, 김재은 옮김. 1996. 『발달과업과 교육』. 배영사.
- 김수환. 2012. 매개된 감정: SNS와 우리 시대의 감정구조. 『기호학연구』, 31, 9-35.
- 김슬기. 2015. 디지털 개인기록 보존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기록관리학회지』, 15(4), 77-98.
- 김유석, 이승하. 2011. 서사적 정체성의 현대적 의의. 『인문과학연구』, 29, 29-49.
- 김혜원, 박동숙. 2013. 소셜네트워크 거주민으로 살아가기 : SNS 사용자경험에 관한 통시적 접근. 『한국언론학보』, 27(2), 287-315.
- 류한조. 2019. 생애기억 아카이브를 이용한 노인의 자서전 : 쓰기 콘텐츠 기획 연구. 건국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박사학위논문.
- 박주석. 2011. 한국 기록사진의 개념 형성과 전개. 『기록학연구』, 27, 169-208.
- 방진하. 2014. 맥킨타이어 '서사적 자아'(narrative self) 개념의 교육적 의미 탐색. 『교육철학』, 36(2), 71-99.
- 신상규. 2011. SNS 시대의 자아 개념. 『기호학연구』, 30, 77-98.
- 오명진. 2017. 개인 기록의 특성과 기록화 전략. 『기록학연구』, 53, 79-117.
- 이광경, 주영아. 2016. 노년기 자아통합감 증진을 위한 자전적 글쓰기 프로그램 효과 연구. 『한국노년학』, 36(2), 295-313.
- 이미애. 2015. 일본 고령자의 평생교육으로서 개인사 창작활동의 의의. 『일어일문학』, 70(7), 457-470.
- 전시자. 1989. 회상(reminscence)에 대한 개념 분석. 『한국간호학회지』, 19(1), 92-98.
- 정래필. 2016. 경험서사를 활용한 소설 창작교육의 내용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9), 1-24.
- 정민승. 2000. 온라인에서의 자아정체성. 『교육인류학연구』, 3(3), 141-162.
- 진영선, 김영경. 2010. 자전적 기억의 특성 분석과 적용 가능성의 탐색.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3(2), 207-229.

- 최선녀. 2014.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서전 쓰기 교육 : 미래 자서전 쓰기를 중심으로. 『교양국어연구』, 8(5), 97-130.
- 최영, 박성현. 2011. 소셜 미디어 이용 동기가 사회 자본에 미치는 영향. 『한국방송학보』, 25(2), 241-276.
- 최유리, 임진희. 2016. 개인기록 관리 방안 연구 : '나의 아카이브(My Archive)' 만들기. 『기록학연구』, 47, 5-49.
- 한국미디어패널조사 연구팀. 2020. 2019년 한국미디어패널조사 결과 주요 내용. 『KISDI STAT Report』, 20-01.
- Butler, R. N.. 1963. The life review: An interpretation of reminiscence in the aged. 『Psychiatry』, 26.
- Conway, M., Pleydell-Pearce, C.. 2000. The construction of autobiographical memories in the self-memory system. 『Psychological Review』, 107(2).
- Eric Ketelaar. 2007. Archives in the Digital Age: New Uses for an Old Science. 『Archives & Social Studies』, 1.
- Garde-Hansen J.. 2009. MyMemories?: Personal Digital Archive Fever and Facebook. 『Save As ... Digital Memories』. Palgrave Macmillan, London.
- Geoffrey Yeo. 2008. Concepts of Record (2): Prototypes and Boundary Objects. 『The American Archivist』, 71(1).
- Geoffrey Yeo. 2012. Bringing Things Together: Aggregate Records in a Digital Age. 『Archivaria』, 74.
- Mark Greene. 2009. The Power of Archives: Archivists' Values and Value in the Postmodern Age. 『American Archivist』, 72(1).